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김 명 진*

1. 머리글
2. 운주의 역사·지리적 검토
3. 공준(兢俊)의 고려 귀부와 운주성
4. 운주전투의 전개과정
5. 맺음글

1. 머리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수행한 통일전쟁의 여러 전투 중에서 충청지역의 판세는 물론이고, 전체 전장의 판세까지도 결정지은 전투가 운주전투(運州戰鬪)였다. 운주성(運州城)은 운주(運州)(홍주, 충남 홍성) 일대의 주요 거점성인데, 고려 통일전쟁 중에 이 성(城)과 주변에서 고려와 후백제(당시 명칭은 백제)가 2차례나 전투를 치렀다.¹⁾ 고려 통일전쟁의 주요한 전투로는 왕건이 즉위 전에 수행한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1) 이 전투는 운주성이 중심이었기에 그 이름을 운주성전투라고 쓸 수도 있다.

덕진포전투(전남 영암)와 즉위 후에 수행한 조물성전투·공산동수전투(대구)·고창군전투(경북 안동)·일모산성전투(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운주전투·일리천전투(경북 구미) 등 여러 전투가 있었다. 이는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다툼이었다.

이상의 전투 중에서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가 발생하기 전에 양국의 판세를 결정지은 전투가 934년의 제2차 운주전투였다. 그런데 이미 927년에 제1차 운주전투가 발생하였다. 운주성은 양국의 접경지였으며 고려 측에서는 국왕인 왕건이 2차례 모두 친정(親征)하였다. 그만큼 중요한 곳에서 발생한 중요한 전투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운주성에는 지역세력으로서 공준(恭俊)이라는 인물이 양국 판세의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운주전투에 대해서는 운주(홍주)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세력인 공준과 이곳에서 행해진 전투를 주목한 연구들이 있었다.²⁾ 그런가하면 당시 주변 전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아산만 공략과정³⁾과 일모산성전투⁴⁾ 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로 인하여 운주전투의 실상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하지만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 판세를 결정지은 운주전투를 전쟁사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 전투가

하지만 실제 전투현장은 운주성보다는 그 가까운 바깥이었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 그 이름을 ‘운주전투’로 쓰고자 한다.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에서 두 차례에 걸친 운주전투를 ‘제1차 운주전투’, ‘제2차 운주전투’라 이름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따른다.

- 2) 윤용혁,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운주, 홍주, 홍성」, 『홍주문화』 13, 홍성문화원, 1997;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 74, 한국사학회, 2004.
- 3)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 4)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고려 통일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고려 통일전쟁 이전 및 당시의 운주지역 역사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이 곳의 유력한 지역세력이었던 금준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 작업 후에 운주전투의 제1차 전투와 제2차 전투의 실상을 그려보는 게 논지 전개의 자연스런 흐름이 될 것이다. 이 글의 완성을 위해서 기본사서 및 선행연구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투 현장을 답사하여 해결하고자 한다.⁵⁾ 이 글이 고려 통일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 운주의 역사·지리적 검토

운주(運州, 홍주, 충남 홍성)는 고려 통일전쟁기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사료가 별반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실상에 접근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충남 홍성군은 동쪽에 예산군, 남동쪽에 청양군, 남서쪽에 보령시가 접하고, 서쪽으로 서해 천수만(淺水灣)이 있으며, 북쪽에는 서산시가 자리잡고 있다.

홍성이라는 이름은 일제시대인 1914년 이후의 제도 개편에 의하여 이웃하고 있었던 홍주군과 결성군이 통합되면서 양군의 지명을 한자씩 조합하여 새 이름으로 탄생한 것이다.⁶⁾ 대체로 홍주는 동쪽의 내륙쪽에 위치해 있고 결성은 서쪽의 바다에 인접해 있었는데, 이 둘을 더하고 보령군(충남 보령시) 청소면의 일부를 합한 것이

5) 지역에 대한 용어는 이 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려 통일전쟁 이후의 명칭도 섞어서 사용하려 한다(충청, 경상, 홍성 등).

6) 윤용혁, 앞의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 운주, 홍주, 홍성」, 1997, 30~31쪽.

오늘날의 홍성군이다.⁷⁾ 운주(홍주)의 고려 통일전쟁기 이전의 모습은 현 홍성군 관내에 있었던 군현의 옛 흔적을 통해서 지나온 이력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고고학 자료를 덧붙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주지역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보이고 있다.⁸⁾ 이어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고인돌도 다수 자리하고 있으므로⁹⁾ 이 지역은 일찍부터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었다. 운주의 중심지였을 홍성읍은 홍성천이 삽교천에 합류하면서 북으로 흐르고 그 주변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 물줄기는 아산만으로 유입한다. 그리고 홍성군 서남쪽의 여러 포구들은 서해의 천수만으로 열려져 있다. 이처럼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운주는 당연히 백제시대에도 쓸모 있는 곳이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기록의 흔적은 홍성읍보다는 홍성군 관내 먼 단위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군데를 살펴보면, 결성(홍성군 결성면)은 백제 때 결기군(結己郡)이었는데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가 경덕왕대에 결성군(潔城郡)으로 고쳤다.¹⁰⁾ 백제의 사시량현(沙尸良縣)은 신라 경덕왕대에 신량현(新良縣)으로 이름이 바뀌고 고려시대에는 여양현(黎陽縣)이라 하였다. 그런데 장곡산성(여양산성, 석성산성,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에서 사시(沙尸)라는 명문이 찍힌 기와편이 발견되어¹¹⁾ 백제의 사시량현은 현 홍성군 장곡면 일대라고 단정된다.

그러면 운주의 중심이었을 홍성읍에는 고려 통일전쟁기 이전에

7) 『地方行政區域發展史』, 내무부, 1979, 105쪽.

8) 『洪城邑誌』, 홍성읍지편찬위원회, 2008, 122~123쪽.

9) 『문화유적분포지도 - 홍성군』,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290~291쪽.

10)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결성군.

11) 장곡산성(여양산성, 석성산성)에 대해서는, 『文化遺蹟總覽』(城廓 官衙 篇), 충청남도, 1991, 219~220쪽; 『洪城郡 長谷面 一帶 山城 地表調査報告書』, 상명여자대학교 박물관·홍성군청, 1995; 『문화유적분포지도 - 홍성군』,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192~193쪽 참고.

어떤 군현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삼국시대의 지명만 있고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지역’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해풍향(海豊鄕)이라는 곳이 있다.¹²⁾ 그런데 운주가 어느 때에 해풍(海豊)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주목의 군명(郡名)이 5개 나열되어 있다. 운주(運州)·안평(安平)·해풍(海豊)·해흥(海興)·홍양(洪陽)이 그것이다.¹³⁾ 이 중에서 해풍이 『삼국사기』의 해풍향이라고 지적한 견해가 있는데 참고된다.¹⁴⁾ 그런가하면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안평과 해풍을 모두 고려 성종대에 정한 별호(別號)라고 하였다.¹⁵⁾ 또한 『충청도읍지』의 홍주목 고적조에는 “해풍현의 옛터가 지금의 홍주목 주치(州治)”라고 하였다.¹⁶⁾

아마도 운주의 주치는 대략 10세기 이전의 어느 때에 있었던 해풍향 또는 해풍현의 치소가 그 뿌리였으며, 이로 인하여 고려 성종대에 별호로서 해풍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해풍(海豊)이라는 이름은 그 뜻으로 보아 바다와 친연성이 높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실제로 이곳은 앞에서 기술했듯이 금마천이 아산만으로 연결되고, 옛 결성군 방향 그리고 남서쪽(현 홍성군 광천읍) 등을 통해 서해 천수만과 접해있는 곳이다.

해풍현(해풍향)은 각종 지리지에 그 흔적이 없거나 미미했는데 이는 이곳이 일대에서 비중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¹⁷⁾ 그랬던 곳이 고려 통일전쟁기에 운주(運州)라는 전혀 새로우면서

12)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三國有名未詳地分 海豊鄕.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홍주목, 군명.

14) 조원찬, 「제4장 신라시대」, 『洪州大觀』상권, 홍주대관편찬위원회, 2002, 243~245쪽.

15)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홍주.

16) 운주 이전의 해풍현에 대해서는, 윤용혁, 「고려시대 홍주의 성장과 홍주읍성」, 『전통문화논총』7, 한국전통문화학회, 2009, 220~223쪽 참고.

17) 윤용혁, 위의 「고려시대 홍주의 성장과 홍주읍성」, 2009, 220쪽.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났다. 관련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918년 8월) 응주(熊州, 충남 공주)·운주(運州) 등 10여 주현이 모반하여 (후)백제로 가 붙었다.¹⁸⁾

위의 사료에서 비로소 운주가 등장하고 있다. 주(州)라는 것은 잘 알려졌듯이 원래 중국 고대에 천하를 아홉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에 그 하나였다. 신라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전국을 9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신문왕 5년(685)에 완성하였다.¹⁹⁾ 이 같은 신라의 행동은 어쩌면 황제국 체제를 모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만큼 주는 지역단위로서 무게감이 있었다. 신라의 9주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상주(尙州)·양주(良州)·강주(康州)·한주(漢州)·삭주(朔州)·명주(溟州)·웅주(熊州)·전주(全州)·무주(武州) 등이 있었다. 9주 중에서 현 충청지역의 대부분은 응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사료 가)에서는 태조 원년인 918년 8월에 응주와 대등한 관계로 보이는 또 하나의 주인 운주가 보이고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즉위하면서 새롭게 원년을 칭한 것이 918년 6월인데²⁰⁾ 불과 2달 후에 운주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운주를 주로 정해 준 국왕이 왕건이라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 존재가 미약했던 해풍현(해풍향) 지역이 주로서 보다 큰 이름으로 재탄생한 것은 왕건이 즉위하기 이전일 것이다.

이제 기존의 9주 이외의 주로서 왜 운주가 탄생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9주 이외의 주로서 죽주(竹州, 경기 안성시 죽산면)가

1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以熊運等十餘州縣 叛附百濟”.

1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5년.

2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6월.

891년에 나타나고 있다.²¹⁾ 많은 지역들이 889년(진성여왕 3)에 발생한 원종(元宗)과 애노(哀奴)의 반란을 기점으로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다.²²⁾ 따라서 죽주의 출현을 통해서 이전에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지역들에서 특정 지역세력이 주동하여 9주와 대등한 주를 표방한 것이 아닐까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어서 궁예의 통치 시기 및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기에 주가 다수 나타난다. 『고려사』 태조세가에 의하면, 왕건이 개국하기 전인 900년에 궁예가 왕건에게 명하여 광주(경기 광주)·충주(충북 충주)·청주(靑州, 충북 청주)·당성군(경기 화성)·괴양군(충북 괴산) 등의 군현을 토벌하게 했는데, 왕건이 이를 다 평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³⁾ 여기서 광주(한주)는 9주의 하나이고²⁴⁾, 충주와 청주가 새로운 주로서 등장하였다. 충주는 태조 23년(940)에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²⁵⁾, 청주 또한 같은 해에 이름이 지어졌다 한다.²⁶⁾ 하지만 청주는 한자 표기의 변화가 있어서 940년에 청주(淸州)이지만 그 이전인 900년에는 청주(靑州)라고 표기하였다.²⁷⁾ 이는 청주가 이미 900년 즈음부터 주로서 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충주도 900년경에 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²⁸⁾

21)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 대순 2년 신해.

22) 『삼국사기』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3년;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32~33쪽.

23)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광화 3년 경신.

24) 『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한주.

25) 『고려사』권56, 지10, 지리1, 충주목.

26) 『고려사』권56, 지10, 지리1, 청주목.

27) 청주의 한자표기가 청주(靑州)에서 청주(淸州)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41쪽, 주15;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59~61쪽 참고.

28) 한편, 태조 23년(940)에 전국의 주부군현(州府郡縣)의 명칭을 처음으로 고쳤다고 했는데(『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글머리), 이는 그 명칭을 전국적으로 처음 확정했다는 것이지, 모든 지역이 그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은

이상의 추정엔 힘을 실어주는 것은 나주(羅州, 전남 나주)의 생성 때문이다. 903년, 왕건에 의해서 금성군이 궁예의 영역이 되면서 그 명칭이 나주로 바뀌었다.²⁹⁾ 또한 이즈음에 정주(貞州)도 보인다.³⁰⁾ 918년 3월에는 동주(東州, 강원 철원)라는 지명도 나타난다.³¹⁾ 그리고 왕건이 즉위한 후에는 보다 더 많은 다수의 주들이 발견된다. 이는 궁예가 자신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지역들을 주로 승격하여 해당 지역을 우대하며 생겨난 현상이었다. 또한 특정 지역이 스스로 지역세력의 주도 아래 자신들의 거주지를 주로 승격해서 자칭했던 것을 궁예가 인정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궁예는 주라는 이름의 무게감으로 해당 민들에게 인심을 쓴 것이다. 이를 왕건이 즉위한 후에도 그대로 이어받아 주가 양산되었다고 판단된다.³²⁾ 그리고 견훤의 후백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탄생된 주 중의 하나가 바로 운주였다.

요컨대 사료 가)는 918년 8월의 일이므로, 운주가 탄생된 때는 889년 이후부터 918년 8월 이전의 어느 시기였다. 물론 해풍현(해풍향) 치소 자리에 들어선 운주를 궁예가 승인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예 궁예가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다.³³⁾ 또한 지역세력이 자신의

아니다. 예를 들면 공주(충남 공주)라는 명칭을 태조 23년에 고쳤다고 했는데(『고려사』권56, 지10, 지리1, 공주), 이미 견훤이 892년에 공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全武公等州軍事~의 公州). 따라서 태조 23년의 전국 주부군현 명칭은 기존의 사용하던 것과 새로운 것들을 다 포함하여 확정을 지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9)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천복 3년 계해.

30)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31)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정명 4년 3월.

32) 고려 초의 州는 궁예→태조의 경략 과정에서 그들에게 귀부 내지 협조한 지역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김갑동, 「高麗初의 州에 대한 考察」, 『고려사의 재문제』, 삼영사, 1986, 279쪽).

33) 궁예 통치기에 그 남방기지로써 운주가 설치되었다는 견해가 참고된다(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흥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35쪽).

통치지역을 운주라고 자칭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운주는 그 명칭이 주로 개칭되어 이전에 비해 한껏 격상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궁예정권에게 귀부한 강력한 지역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운주는 당시 궁예정권과 견훤정권의 최일선 접경지역이었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력한 지역세력이 있었는데 그는 공준(兢俊)이었다.

3. 공준(兢俊)의 고려 귀부와 운주성

신라는 진성여왕 3년(889)부터 급속히 멸망의 길로 내달리게 되었으며 지방은 해체되어 갔다.³⁴⁾ 급기야 900년에 전주에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³⁵⁾ 901년에는 궁예가 송악(개성)에서 고려(마진, 태봉)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다.³⁶⁾ 충청지역은 두 국가의 접경지역이면서 전장의 최일선이 되었다. 운주는 그 접경지역의 주요 거점 중에 하나였다. 앞에 기술한 사료 가)는 그 근거가 된다. 공주와 운주가 접경지역이었기에 소속 국가를 바꾸는 게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만약 운주가 고려의 내륙에 위치해 있었다면 후백제로 귀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당시 특정지역이 소속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해상을 통해서 연결 가능한 지역이거나, 접경 지역이거나였다. 나주가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운주는 해상으로도 연결이 가능했지만 무엇보다도 접경지역이었기에

34) 『삼국사기』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3년;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32~33쪽.

35) 『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36)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 『삼국유사』권1, 왕력1, 후고려;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소속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측면이 강했다.

한편, 운주의 남쪽인 공주에 공주장군 홍기(弘奇)라는 인물이 있었다. 홍기는 904년에 궁예에게 귀부하였다.³⁷⁾ 따라서 공주의 북서쪽에 있는 운주도 이즈음에 궁예에게 귀부하였을 것이다.³⁸⁾ 이러한 운주를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세력은 궁준(兢俊)이었다. 다음 사료는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 궁준의 모습이다.

나) (927년 3월 신유) 왕(왕건)이 운주로 쳐들어가 그 성주(城主) 궁준(兢俊)을 성 아래에서 깨뜨렸다.³⁹⁾

앞에서 제시한 사료 가)와 위의 사료 나)를 아울러 살펴보면, 먼저 918년에 운주라는 이전에 비해 보다 큰 의미로 작명된 지역명이 등장한다. 이는 889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운주가 탄생한 것인데 그 중심은 운주 지역 내에 있는 어느 성이었다. 그리고 그 성의 주인, 즉 성주는 궁준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운주의 중심인 치소성은 운주성이라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그곳이 현재 어디쯤일지 궁금하다.

사료 나)에서 전투의 승리 현장은 운주성 아래였다. 궁준은 적군인 고려군이 공격해왔는데 그것도 고려 국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온 상태에서 성 밖에서 맞아 싸웠다. 고려 태조 왕건은 최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최상의 장비를 갖추어 운주성을 공격했을 것이다.

37)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

38)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74, 한국사학회, 2004, 139쪽 참고.

39)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王入運州 敗其城主兢俊於城下”.

40) 사료 나)의 “王入運州 敗其城主兢俊於城下”에서 ‘운주성’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내용상 궁준의 성은 운주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군현명+성’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당시 읍호(군현명)를 포함한 성은 대부분 치소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최종식,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韓國史論』5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4, 101~102쪽), 운주의 치소성은 운주성이라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공준은 과감히 성 밖에서 전투를 벌였다. 공준의 이러한 전투자세는 매우 무모한 것이었다. 아마도 공준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한다. 공준의 입장에서 적의 최고 정예부대가 공격해 왔으니 이를 막아낼 방법을 생각해 내는 건 병법상 당연한 것이다. 공준은 운주성에서 농성하며 적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운주성이 평지성이었기에 오히려 성 밖으로 나아가 정면 승부하는 방법이 최상이었다고 추정된다.

앞에서 “해풍현의 옛터가 지금의 홍주목 주치”라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해풍현과 홍주목의 중간에 자리한 운주의 치소 역시 홍주목의 치소라고 여겨진다. 『세종장현대왕실록』 지리지에서도 927년(태조 10) 3월의 운주가 홍주라고 하였다.⁴¹⁾ 이를 통해서도 홍주의 주치가 운주의 주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최근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실시한 ‘홍주성 의병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시굴 및 발굴 조사에서 신라 말·고려 초로 추정되는 토성벽과 구상유구(溝狀遺構)가 발굴되어⁴²⁾ 홍주의 치소인 홍주읍성의 모태가 운주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현재 홍성읍내 중심지에 홍주읍성(홍주성, 사적 231호)이 평지성으로서 자리하고 있다.⁴³⁾ 석축성인 홍주읍성의 둘레는 약 1,460m

41) 『세종장현대왕실록』권149,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42) 『홍주성내 의병공원 조성부지 1차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홍성군·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이 발굴에서 신라 말·고려 초에 해당하는 토기편과 고려 초에 제작된 햇무리굽 청자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당말오대(唐末五代)~북송대(北宋代)에 제작된 청자편도 출토되었다. 한편, 윤용혁, 「고려시대 홍주의 성장과 홍주읍성」, 『전통문화논총』 7, 한국전통문화학교, 2009, 237쪽에서 이 토성 유구를 공준과 연결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의 확인이라 하였는데 필자도 동의한다.

43) 이 성의 입지는 완벽한 평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작은 언덕처럼 솟은 곳도 있다. 하지만 대략 평지성으로 보아도 무난할 것이다. 해자(壕字)는 월계천과 홍성천이 홍주읍성을 감싸며 자연해자 역할을 하는데 그 수량은 비가 오지

이다.⁴⁴⁾ 따라서 현재까지 발굴된 성과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토성(土城)⁴⁵⁾인 운주성(또는 해풍현성)을 모태로 하여 고려시대 또는 늦어도 조선 초에 석성(石城)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에 읍석성(邑石城)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이미 조선 초인 세종 이전에 홍주읍성을 석성으로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홍주읍성 자리에 있었던 평지성이 운주성이었다.

이번에는 운주성의 성주 공준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자. 당시 신라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많은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분리되어 갔다. 각각의 지방은 특정 지역세력의 보호아래 자위권을 행사하였다. 이때의 지역세력을 학계에서는 흔히 호족이라고 이름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료에 호족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세력은 주로 성주(城主) 및 장군(將軍), 지주제군사(知州諸軍事) 등의 명칭으로 자칭 또는 불리어졌다.⁴⁶⁾

먼저 지주제군사(知州諸軍事)는 앞선 연구에서 이를 국가로부터 임명 혹은 적어도 승인을 얻은 관직명이라 했는데 참고된다.⁴⁷⁾ 하지만 지주제군사가 모두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견훤의 경우에는 달랐다. 892년에 견훤은 신라서면도통(新羅西面都統)·지휘병마(指揮兵馬)·제치지절도독(制置持節都督)·전무공등주군사(全武公等州

않을 때는 크지 않다. 2015년 6월 29일 답사.

44) 『홍성 홍주성 남문지』, 홍성군·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1쪽. 이 성의 정식 명칭은 ‘홍성 홍주읍성’이고 그 둘레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에서는 읍석성의 둘레가 5백 33보 2척이라 하였다. 『문화유적분포지도 - 홍성군』,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104쪽에는 1,460m로 되어 있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약 1,772m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성벽은 일부만 남아 있어서 정확한 둘레는 모르는 실정이다.

45) 만약 전체적으로 발굴이 진행된다면 초창기에 축조된 성 전체가 토성이었는지, 아니면 일부구간은 석성(石城)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46) 그밖에 수(帥) 또는 대모달(大毛達) 등의 칭호도 사용하였다.

47) 전기웅, 「羅末麗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경남사학』4, 경남사학회, 1987, 7~8쪽.

軍事)·행전주자사(行全州刺史)·겸어사중승(兼御史中丞)·상주국(上柱國)·한남군개국공(漢南郡開國公)·식읍이천호(食邑二千戶)라고 자서(自署)하였다.⁴⁸⁾ 이 관직도 ‘00주군사’ 즉 지주제군사 유형의 것이었다. 이것은 신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자칭한 것이다. 이때는 견훤이 후백제를 정식으로 건국하기 이전의 일이었다.⁴⁹⁾

지주제군사를 견훤처럼 자칭한 경우가 있고 국가로부터 임명받은 경우가 있는데 김행도(金行濤)는 중앙으로부터 임명받아 지방으로 임무수행을 위해 내려온 대표적인 경우이다. 사료 가)에서 918년 8월에 응주와 운주를 비롯한 10여 개의 주현이 모반하여 후백제로 붙었다고 하였다. 고려는 그 후속조치로 전시중(前侍中) 김행도를 동남도초토사(東南道招討使)·지아주제군사(知牙州諸軍事)로 임명하였다.⁵⁰⁾ 여기서 아주는 현 충남 아산시 중에서 주로 아산만과 접해 있던 곳이었다. 김행도는 이곳의 지역세력이 아니라 국왕 왕건의 명에 의해 아산만 일대까지 후백제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 임무를 부여 받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였다.⁵¹⁾ 이처럼 지주제군사는 자칭과 임명직이 있었는데 공준은 이러한 지주제군사는 아니었다.

공준은 사료 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주로 대접받는 인물이었다. 당시 지역세력이 가장 많이 표방한 명칭은 성주 및 장군이였다. 혼돈스러운 전쟁의 시기에 일정 지역의 민들이 거점 성(城)을 중심으로 무장하여 자위권을 행사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했기에 그 우두

48) 『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49) 김갑동, 「百濟 이후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28,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1999; 「예산지역」,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171쪽;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14쪽.

50)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51)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11~15쪽.

머리는 성주를 자칭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군사적·경제적·정치적으로 지배하였다.⁵²⁾ 또한 성주는 곧 장군을 칭하였다.⁵³⁾ 당시 장군은 임명직장군과 자칭장군이 있었는데 성주를 칭한 자는 거의 다 장군을 칭했다. 자칭장군은 일정한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⁵⁴⁾ 대표적인 자칭장군으로는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와 궁예를 들 수 있다.

상주 가은현(경북 문경시 가은읍) 출신인 아자개는 본래 농사를 지어 자력으로 살았으나 뒤에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⁵⁵⁾ 아자개는 혼란한 시기에 힘을 길러 자칭장군이 되었던 것이다. 궁예도 894년에 명주(강원 강릉)에서 자립의 기반을 잡게 되기에 이르자 민들의 추대를 받아 장군이 되었다.⁵⁶⁾ 이는 궁예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자칭장군이라 하겠다. 이들 이 외에도 자칭 장군들은 다수가 나타났다. 가히 ‘장군의 시대’라 할 정도였다. 그런데 00주군사(지주제군사)인 견훤과 장군인 궁예는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칭장군들은 특정 지역의 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궁예·왕건 또는 견훤에게 귀부하였다.

충청지역의 지역세력 중에서 성주·장군을 함께 칭했던 공직(龔直)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공직을 통해서 궁준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매곡산성(매곡성, 충북 보은군 회인면)을 거점으로 매곡현 일대를 관장하였던 성주 공직은 장군을 자칭하였다.⁵⁷⁾

52) 최종석, 앞의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2004, 77~78쪽.

53) 신라 진성여왕 3년 이후에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봉기가 성주·장군의 등장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는데(윤희면, 「新羅下代の 城主·將軍 -眞寶城主 洪術과 載岩城將軍 善弼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39, 한국사연구회, 1982, 58쪽) 필자도 동의한다.

54) 이재범, 『後三國時代 弓裔政權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53쪽.

5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56)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건녕 원년.

따라서 운주성의 성주 공준도 장군을 자칭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⁵⁸⁾ 이들은 각자 웅거하였던 성을 중심으로 해당 군현을 관장했을 것인데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소속 국가가 여러 번 바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매곡현과 운주의 민(民)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성주·장군이 소속 국가를 바꾸면 같이 따라갔다. 아마도 이 지역의 민들은 난세에 자신들의 안위만 보장된다면 국가를 바꾸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운주의 성주 겸 장군이었던 공준의 관할구역은 적어도 현 홍성군 관내는 모두 해당되었다.⁵⁹⁾ 당시 홍성군 관내에 있었던 결기군이 나 여양현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알 수 있는 단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준은 출신 성분이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무적 능력이 뛰어나 운주의 성주가 되었다고 추정해 본다. 일단 그의 이름으로 보아 원래 성씨가 없었다고 생각되기에 집안은 한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료 나)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왕건의 군대와 직접 맞부딪쳤기에 무적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그는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경북 구미) 당시에 고려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중군에 소속되어 대광 왕순식 다음의 지위를 가진 대상(大相)으로서 참여하였다. 대상 공준은 일리천전투에서 몇 명의 지휘관과 함께 마군(馬軍) 2만 명을 지휘하였다.⁶⁰⁾ 이러한 점도 그가 무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후백제 견훤왕 아래에 있었던 공준이 어느 시기에 고려

57) 『고려사』권92, 열전5, 공직, “龔直 燕山昧谷人 自幼有勇略 新羅末爲本邑將軍” ; 『고려사』권127, 열전40, 반역1, 환선길 부(附) 임춘길, “…… 景琮姊乃昧谷城主龔直妻也”.

58) 공주장군 홍기도 비슷한 경우였다.

59) 성주와 장군은 대부분 군현명+성주, 군현명+장군 등으로 기록되어 이들이 해당 군현의 지배자였음을 알 수 있다(최중식, 앞의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2004, 83쪽). 따라서 운주성주 공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공준의 관할구역이 운주일대(홍성)라고 이해할 수 있다.

60)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9년 9월.

태조 왕건의 아래로 들어와 일리천전투에서 고려군 장수로 참여하였다. 그가 언제 주군(主君)을 바꾸었는지 궁금하다. 한편, 같은 시기에 운주의 지역세력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바로 홍규(洪規)였다.

- 다)-① 흥복원부인 홍씨는 홍주(운주)사람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홍)규의 딸이다. 태자 직(稷)과 공주 하나(이름은 모름)를 낳았다.⁶¹⁾
 다)-② 홍규(洪規), 태조를 섬겨 벼슬이 삼중대광에 이르렀다.⁶²⁾

사료 다)에 의하면, 고려 태조대에 운주에서 궁준 이 외의 지역세력으로 홍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홍규는 태조 왕건을 섬겨서 삼중대광이라는 높은 관계(官階)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딸이 태조의 부인이었다. 다)-①의 흥복원부인은 『고려사』 후비전에 그 순서가 12번째 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다.⁶³⁾ 홍규는 상당히 비중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궁준과 홍규를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⁶⁴⁾ 한 지역에 지역세력이 복수로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하나의 군현에 중심 성을 거점으로 한 명의 지역세력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또한 궁준의 일리천전투 참전 공로로 보아 홍규의 지위는 궁준의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당시 운주에서 딸을 태조의 부인으로 들일 수 있을 정도의 지역세력은 궁준밖에 없었다. 따라서 궁준과 홍규는 동일인물로 볼 수 있다.⁶⁵⁾

61)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흥복원부인 홍씨, “興福院夫人洪氏 洪州人 三重大匡規之女 生太子稷公主—”.

6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홍주목, 인물 고려, “洪規 事太祖 官至三重大匡”.

63)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64) 윤용혁,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운주, 홍주, 홍성」, 『홍주 문화』 13, 홍성문화원, 1997, 25~26쪽; 『洪州大觀』 상권, 홍주대관편찬위원회, 2002, 260~262쪽.

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52쪽.

65) 한편, 궁준과 홍규의 동일인물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도 있다. 신호철은 태조 10년 3월의 운주 궁준과 태조 19년 9월의 일리천전투 시 궁준은 동일

성씨가 없던 공준이 왕건에게 귀부하고 홍규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받고 딸을 왕의 부인으로 들였다고 판단된다.⁶⁶⁾ 그의 관계는 일리천전투 당시 대상이었지만 이후 삼중대광에 이르렀다. 그는 무적능력이 뛰어나 운주성의 성주 및 장군이 되었지만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힘의 향배에 따라 소속 국가를 여러 번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준(홍규)은 사료 나)에 의하면, 왕건이 운주성 아래에서 그를 깨뜨렸다고 하였다. 아마 이때 공준은 운주성과 그 휘하 민들의 생존을 보장받는 대신에 주군(主君)을 견훤에서 왕건으로 바꾸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918년 8월에 운주가 모반하여 후백제로 붙었다는 것을 알았다. 왕건이 918년 6월에 즉위한 것을 감안하면 운주성의 공준은 궁예에게 복속되었다가 왕건의 즉위에 불만을 품고 후백제 견훤에게 귀부하였던 것이다. 이는 왕건의 새 국가 창설과 즉위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후백제의 접경지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기에 그러했을 것이다. 또한 공준의 궁예에 대한 밀접성도 한 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요컨대 운주성 성주 공준은 신라 말의 혼란기에 자립하고 있다가 궁예 휘하로 들어갔으며, 그 후 왕건이 집권함에 약 2달은 그 휘하였으나, 모반하여 후백제의 견훤에게 귀부하였다가, 다시 왕건에게 귀부하였다는 것이 추정 가능한 그의 행적이 되겠다. 즉, 공준은 제 1차 운주전투 이후에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견훤에서 왕건으로

인물인데, 홍규는 다른 인물로 보았다(『高麗初 後百濟系 人物들의 활동』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99~100쪽). 장동익은 운주의 공준과 일리천전투의 공준을 별개의 인물로 추정하였다(『고려사세가초기편보유』 1, 경인문화사, 2014, 212쪽과 342쪽).

66) 공준의 생몰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왕건의 12비가 되었기 때문에 927년 당시에 최소한 삼십대 후반은 되었으리라 추정해본다. 혼인할 딸을 가질 정도면 그의 나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인데, 그는 공주 장군 홍기가 나타난 904년에도 활동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나이가 삼십대 후반 이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다.

바꾸었던 것이다.⁶⁷⁾

그러면 이렇게 주군을 여러 번 바꾸는 공준을 왕건은 어떤 믿음 속에서 다시 받아들였을까 수수께끼이다. 공준이 또다시 왕건을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왕건은 공준의 용맹을 아까워했을 것이다. 공준의 용맹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기술하려고 한다. 그리고 왕건은 운주성이 접경지로서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성주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왕건이 꺼낸 묘책은 공준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었다. 공준의 입장에서 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운주성을 보전하면서 왕건의 장인이 되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으리라 생각된다. 공준은 자신의 딸을 왕건에게 납비한 상태에서 다시 견훤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아마도 흥복원부인의 납비 시기는 공준이 왕건에게 패배한 927년 3월 이후의 가까운 시기가 아닐까 한다.

이상 살펴본 바를 토대로 공준의 향배를 <표 1>로 작성해 보았다.

<표 1> 공준의 향배

시 기	공준의 소속 국가	전 거
889년 이후의 어느 때 ~ 904년 전후	독자세력	공주장군 흥기의 행동으로 보아 추정됨 (『삼국사기』권50, 열전10, 공예).
904년 전후~918년 8월	태봉, 고려	공주장군 흥기의 행동으로 보아 추정됨 (『삼국사기』권50, 열전10, 공예);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918년 8월~927년 3월	후백제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927년 3월 이후	고려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67)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9쪽.

4. 운주전투의 전개과정

고려 태조 왕건이 918년 6월에 고려를 건국하고 난 직후에 모두 6차례의 모반이 발생하였다. 그 모반은 주로 충청지역 특히 청주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 모반의 주 무대인 충청지역이 모두 후백제로 넘어갈 상황이었다. 운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918년 8월에 후백제로 넘어갔다. 왕건은 이를 바로 수습하면서 아산만을 중심으로 대후백제 방어망을 다시 재편성하였다. 아산만은 간만의 차이가 큰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해상로를 가지고 있었다. 왕건은 고려군의 주요한 보급로 역할을 하는 해상로 확보 때문에 아산만을 매우 중시하였다.⁶⁸⁾ 고려군의 아산만 확보 정점에 운주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918년 8월에 웅주와 운주 일대가 후백제로 넘어가자 고려는 같은 달에 김행도를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로 파견하여 아주(충남 아산)를 안정화시켰다.⁶⁹⁾ 다음해인 919년 8월에는 오산성을 고쳐 예산현(충남 예산)이라 하고 대상 애선과 홍유를 보내어 유민(流民)을 모아 편안히 살게 하였다.⁷⁰⁾ 당진지역, 특히 혜성군(충남 당진시 면천면)은 왕건의 충복인 복지겸과 박술희의 연고지였다. 두 사람 중에서 복지겸이 혜성군에 대한 재지적 연고가 강하였다. 이 곳은 복지겸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고려의 안정지대였을 것이다.⁷¹⁾ 이처럼 왕건은 아산만의 남쪽지대를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아산만의 북쪽은 이미 공예정권 때에 왕건의 활약으로 태봉의 수중에 있었으며, 왕건이 즉위한 이후에도 민이 동요하는 모습은 없었다.⁷²⁾

68) 왕건의 즉위 초에 발생한 모반과 아산만의 해상로에 대해서는, 김명진, 위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참고.

69)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70)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2년 추8월.

71)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5~26쪽.

72) 김명진, 위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10~11쪽.

이제 태조 왕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아산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불어 남쪽으로 후백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는 925년(태조 8) 10월에 정서대장군 유금필을 보내어 후백제의 임존군(임존성, 충남 예산군 대흥면)을 공격해서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⁷³⁾ 임존성이 있는 봉수산 정상에 오르면 서쪽으로 홍성은 물론이고 서해바다까지 잘 보인다하므로,⁷⁴⁾ 운주를 공략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위해서 왕건에게 임존성 확보는 필요한 것이었다. 이윽고 1년 5개월이 흐른 뒤에 고려군은 임존성에서 가까운 운주성을 공격하였다. 사료 나)에 기술되어 있듯이 927년 3월에 왕건은 직접 운주로 쳐 들어가 성주 궁준을 깨뜨렸던 것이다. 이 전투가 바로 제1차 운주전투였다.

운주성(홍주읍성의 모태)은 평지성이었다. 그보다 훨씬 험준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는 임존성은 운주성 동쪽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두 성의 지도상⁷⁵⁾ 직선거리는 불과 약 10km 정도이다.⁷⁶⁾ 고려가 험준한 임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군사의 숫자가 얼마 정도였을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고려군의 총수는 적어도 적의 2배 이상인 최소 6천에서 최대 1만 명은 되어야 임존성 함락이 가능했을 것이다.⁷⁷⁾ 이러한 고려군을 상대로 궁준은 운주성 아래에서

73)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8년 동10월. 임존성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과 광시면, 홍성군 금마면의 경계가 이루어진 곳에 위치한 봉수산 정상부에 있는 테피식 석축성이다. 산세가 험한 곳에 자리한 이 성은 7세기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었던 곳이다(『문화유적분포지도 - 예산군』,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212~213쪽 참고); 김명진, 위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2쪽 주49.

74) 제보자 : 박상구(남 66세, 충남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토박이, 2015년 6월 29일 마사리 마을에서 구술).

75) 『1/10만 도로지도』, (주)성지문화사, 2007, 94쪽.

76) 임존성 서벽부터 홍주읍성 조양문까지 자동차로 금마로와 21번국도를 경유하는 최단거리를 말이 달리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면 거리는 약 15km이고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이다(2015년 6월 29일).

77)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2~23쪽.

왕건의 고려군을 맞받아 부딪쳤다. 공준은 평지성인 운주성에서 농성하는 것보다 과감히 성 밖으로 나와서 고려군에 대항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리하였을 것이다.

운주성은 비록 부분적인 발굴조사였지만 현재 가장 잘 남아 있는 성벽의 높이는 150cm이고 너비는 400cm 내외인데, 실제로는 높이가 380~400cm이고 너비는 약 14m 내외까지 추정되고 있다.⁷⁸⁾ 공준은 운주성의 실상이 이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험준한 임존성이 고려군에 함락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일찍이 신라는 성을 공격할 때 썼던 구름다리인 운제(雲梯)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라의 운제당(雲梯幢)의 존재가 이를 말해준다.⁷⁹⁾ 고려도 당연히 운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고려군이 험준한 임존성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평지성의 성주인 공준이 공격해오는 왕건의 고려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뿐이었다. 성을 버리고 도주할 것인가, 아니면 성 밖으로 나가서 고려군에 당당히 맞부딪힐 것인가였다. 공준은 용감히 성 밖 평지전투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당시 전투가 운주성 아래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⁸⁰⁾

상황을 보건대 이 전투에서 공준은 패배하고 왕건에게 사로잡혔다. 하지만 왕건은 비록 적장이지만 공준의 행동을 용맹한 선택으로 좋게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접경지역인 운주성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여 공준을 회유했으리라 여겨진다. 왕건이 제시한 회유책은 앞에서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 사료 다)의 내용으로 보아 다음과

78) 『홍주성내 의병공원 조성부지 1차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홍성군·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18쪽과 22쪽.

79) 『삼국사기』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四設幢 雲梯幢.

80) 운주성을 감싸고 있는 두 하천(월계천, 홍성천)은 수량이 많지 않아서 대군이 공격해 올 때는 해자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운주성 주변에는 너른 평지가 일정정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지전투가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2015년 6월 29일 답사.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운주성과 그 민(民)의 안전을 보장하고 궁준에게는 홍규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다. 또한 관계(官階)를 수여했는데 앞에서 기술했듯이 일리천전투에서 궁준의 관계는 대상이었다. 그의 관계는 후에 삼중대광까지 상승하였다. 제일 중요한 것은 궁준의 딸을 왕건의 제12비인 흥복원부인으로 맞아들인 점이다. 이는 모두 왕건의 포용정책의 일환이었다. 왕건은 궁준에게 후한 대접과 함께 다시 배반하지 못하도록 안전책으로서 그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성주의 잘못된 판단은 성에 복속된 민의 허망한 몰살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궁준도 왕건에게 기꺼이 자신의 딸을 납비(納妃)하였을 것이다.⁸¹⁾

왕건은 즉위 초에 모반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수습하고 충남지역에서는 아산만일대를 중시하면서 차츰 후백제를 압박하였다. 충남 아산지역·예산지역 등을 접수하였고, 당진쪽은 복지점 등의 재지기반으로 인하여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홍성지역인 운주를 고려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았다. 차츰 후백제에 대하여 군사적 우위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견훤은 위축된 전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이 필요하였다. 그는

81) 왕건의 비는 기록상 나타나는 사람만 모두 29명인데, 그 기록의 순서는 주로 비의 아버지가 통일전쟁에서 거두었던 공로의 크고 작음이 작용하였다(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50쪽;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56~63쪽). 따라서 흥복원부인이 12비인 것은 그만큼 아버지인 궁준(홍규)의 고려 통일전쟁에서의 공이 크다할 것이다. 또한 왕건과 아들인 혜종(무)은 충청지역에 연고성이 강하게 있는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왕건은 제3비 신명순성왕태후(충북 충주: 유궁달의 딸)·제10비 숙목부인(충북 진천: 임명필의 딸)·제11비 천안부원부인(충남 천안: 경주 임언林彦의 딸)·제12비 흥복원부인(충남 홍성: 홍규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그리고 혜종의 비(妃)인 의화왕후는 진주(鎭州, 충북 진천) 임희(林曦)의 딸이었다. 이 같은 혼인 사례들은 왕건에게 충청지역에서 지역적 기반을 다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69~70쪽). 한편, 고려 국왕 후비의 기록 순서는 대체로 결혼한 순서와 비례함이 원칙이라는 견해도 있다(정용숙, 『고려시대의 后妃』, 민음사, 1992, 42쪽 주22).

927년 9월에 신라 도성인 금성(경주)을 공격하고, 이를 구원하러 온 왕건의 부대마저 공산동수전투(대구 팔공산)에서 대패시켰다.⁸²⁾ 견훤의 신라 도성 공격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제공한 것이 제1차 운주전투였다. 견훤은 운주지역 상실에 대한 만회를 위해서 신라 도성 공격이라는 군사행동을 감행한 측면이 있었다. 제1차 전투가 끝나고 불과 6개월 만에 견훤이 신라 도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을 그릴 수 있다.

그동안 상승세를 탔던 고려군의 전세가 공산동수전투에서 후백제군에게 대패함으로써 크게 추락하게 되었다. 특히 경상지역에서 고려군의 전세가 밀리고 있었다. 왕건은 충청지역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하여 성을 축조하면서 견훤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라)-① (태조 11년, 928년 4월에 왕이) 탕정군에 행차하였다.⁸³⁾

라)-② (928년 4월) 운주의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국경을 지키는 군사(戍卒)를 두었다.⁸⁴⁾

라)-③ (928년 7월) …… 그때 유금필이 (왕의) 명을 받들고 탕정군에서 성을 쌓고 있었는데, ……⁸⁵⁾

라)-④ 산수 월산(月山), 옛말에 이르기를 옥산(玉山)이라 하고 서쪽 3리에 있다. …… [성지] 월산고성(月山古城), 고려 태조 11년에 운주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국경을 지키는 군사를 두었으며 둘레는 9천 7백 척이고 우물은 하나이다.⁸⁶⁾

928년(태조 11) 4월에 왕건은 탕정군(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일대)에 행차하여 성을 쌓도록 하였다. 더불어 운주의 옥산에도 성을

8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8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하4월, “幸湯井郡”.

84)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1년 하4월, “城運州玉山 置戍軍”.

85)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1년 추7월, “…… 時庾黔弼 受命城湯井郡 ……”.

86) 『대동지지』 권5, 충청도 홍주, [山水] “月山 古云 玉山 西三里”, [城池] “月山古城 高麗太祖十一年 城運州玉山 置戍卒 周九千七百尺 井一”.

쌓도록 하였는데 정황상 4월에 두 개의 성을 쌓도록 명했으며, 유금필은 같은 해 7월에 이르도록 탕정군에서 성을 쌓고 있었다고 이해된다.⁸⁷⁾ 그런데 19세기 지리지인 『대동지지』에 기록된 라)-④를 통해 운주의 월산은 예전에 옥산이라고 했으며 그곳에 쌓은 성을 월산고성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읍치의 서쪽 3리라고 되어 있다. 현재 홍주(운주)의 읍치였던 홍주읍성의 서쪽 가까운 곳에 홍성의 진산인 백월산(白月山, 또는 일월산日月山, 394m)이 홍성읍 월산리(月山里)에 있다. 그곳에 허물어진 옛 성곽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백월산성(白月山城, 월산성)이라고 한다.⁸⁸⁾ 즉 운주 옥산에 쌓은 월산고성은 지금의 백월산성인 것이다.⁸⁹⁾

여기에 왕건이 성을 쌓도록 한 것은 평지성인 운주성이 방어하는데 불리하므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운주성에 가까운 옥산에 성을 쌓아서 대 후백제 방어망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그 성을 지키는 군사를 따로 두었다는 것은 공준을 견제할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때까지 운주일대가 고려의 영역이면서 양국의

87)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16쪽.

88) 『한국지명총람』4(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414쪽; 『文化遺蹟總覽』(城廓官衙 篇), 충청남도, 1991, 210~211쪽; 『문화유적분포지도 - 홍성군』,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111~112쪽.

89)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 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 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44쪽에서는 운주 옥산에 쌓은 성을 여양산성이나 월산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漣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21~24쪽에서는 고려군이 축성한 성을 용봉산성으로 보았다.

현지답사를 해보니 토박이들은 이 산을 보통 월산(정식명칭은 백월산)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월산의 정상에서 동쪽으로 보면 홍성읍 시내는 물론이고 임존성이 있는 봉수산이 보인다. 날씨가 맑으면 서쪽으로 천수만을 비롯하여 안면도와 서해도 잘 보인다고 한다. 월산 동쪽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이고, 서쪽은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이다. 그리고 유태섭의 구술에 의하면, 이 산의 중턱 가파른 곳 위에 성이 있으며 성 위쪽으로 조금 오르면 식수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도랑이 몇 개 있다고 한다.

제보자 : 2015년 6월 29일. 원성노(남 79세, 월산1리 토박이, 월산1리 마을에서 구술), 유태섭(월산1리 이장, 남 68세, 월산1리 토박이, 월산1리 마을회관과 백월산 정상에서 구술).

접경지역이었던 것은 확실하였다. 수졸(戍卒), 즉 국경을 지키는 군사를 두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의 어느 때에 운주는 후백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그 근거는 뒤에 기술할 제2차 운주전투가 934년에 벌어졌으므로 그리 판단하게 된다. 934년 이전에 운주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한편, 경상지역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왕건은 929년 12월부터 930년 정월사이에 벌어진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 승리를 거두며 대반전을 이루었다.⁹⁰⁾ 그러나 바로 이어서 견훤은 나주(전남 나주)를 고려로부터 탈환하면서 역시 반전을 꾀하였다.⁹¹⁾ 왕건은 경상지역을 공고히 하였지만 나주 서남해와 서해의 제해권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와중에 충청지역에서 대 후백제 전선을 우위에 두고자 하였다. 먼저 930년(태조 13) 8월에 천안도독부(충남 천안)를 설치하고 대 후백제 전초기지의 중심으로 삼았다.⁹²⁾

이후 고려가 충청지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충청지역의 대표적 지역세력 중의 한 사람인 매곡산성(매곡성, 충북 보은군 회인면) 성주 공직이 고려로 귀부하였는데 이때가 932년(태조 15) 6월이었다.⁹³⁾ 왕건은 이를 기회로 같은 해 7월과 11월 즈음에 매곡산성의 바로 서편 가까이에 있는 일모산성(양성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을 연거푸 공격하여 마침내 성을 공략하였다.⁹⁴⁾ 후백제를 남쪽으로 좀 더 밀어 붙인 형국이 되었으니 이제 충청의 충북지역에서도 고려는 유리한 전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음 전선은 충남지역이었다.

9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12월과 13년 정월.

91)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140쪽.

9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3년 8월.

93)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6월.

94)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77~84쪽.

이때 후백제도 반격 작전을 전개하였다. 932년 9월에 견훤은 후백제 수군을 동원하여 예성강 일대인 염주·백주·정주에서 선박 1백척을 불사르고, 저산도에서 기르던 말 3백 필을 취하여 돌아갔다.⁹⁵⁾ 계속해서 후백제는 다음 달인 10월에 대우도를 공략하였다.⁹⁶⁾ 이 상황은 고려 도성인 개경과 가까운 지역들이 후백제 수군에 의해 타격당한 것이었다. 이는 아산만 입구 및 충남 서해안의 제해권을 후백제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운주가 다시 후백제 영역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⁹⁷⁾ 하지만 운주가 후백제로 넘어갔어도 궁준은 왕건의 휘하에 남았다고 판단된다. 4년 뒤인 936년 9월의 일리천전투에 궁준은 고려군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전하였다. 따라서 비록 운주가 다시 후백제의 영역으로 넘어갔지만 궁준은 고려군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왕건은 아산만일대를 공고히 하고 충남지역에서도 유리한 전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수순을 밟았다. 이는 서해 제해권 확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작전이었다. 934년(태조 17) 5월에 예산진(충남 예산)에 행차하여 자애로운 내용의 조서를 반포하였다.⁹⁸⁾ 왕건의 이런 행동은 곧 닥칠 9월 전투 준비를 위한 사전 포석의 하나였다.⁹⁹⁾ 예산진은 개경에서 예성강과 서해, 그리고 아산만을 거쳐 빠르게 군사와 군수물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왕건은 이때 예산진에서 지역민들에게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려 했을 것이다. 드디어 제2차 운주전투가 발발하였다.

9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9월.

9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동10월.

97) 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흥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48쪽.

9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7년 하5월. 예산진에서 왕건이 내린 장문(長文)의 조서는 한마디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편안히 살게 하라”이다(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3~25쪽).

99) 윤용혁, 앞의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漚州城主 兢俊」, 2007, 16쪽.

마) (934년 가을 9월)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를 정벌하려 하니, 견훤이 이 소식을 듣고 갑사(甲士) 5천 명을 선발하여 (운주에) 이르러 말하기를, “양편의 군사가 서로 싸우면 형세를 보전하지 못하겠소. 무지한 병졸이 살상을 많이 당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기 국경을 보전합시다” 하였다. 왕이 여러 장수를 모아 의논하니 우장군(右將軍) 유금필(庾黔弼)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형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임금께서는 신들이 적을 쳐부수는 것만 보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저 편에서 진을 치기 전에 군세고 날랜 기병(勁騎) 수천 명으로 돌격하여 3천여 명을 목 베거나 사로잡고, 술사(術士) 종훈(宗訓)과 의사(醫師) 훈겸(訓謙)과 용맹한 장수 상달(尙達)·최필(崔弼)을 사로잡으니, 웅진(熊津) 이복의 30여 성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¹⁰⁰⁾

이상의 내용은 제2차 운주전투의 실상이다. 왕건은 934년(태조 17) 9월 제2차 운주전투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 해에 서경(평양)에는 가뭄이 들고 누리(메뚜기)의 피해가 있었다.¹⁰¹⁾ 고려는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왕건은 그나마 농사 수확기에 전투를 해야 군량미 수급이 원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9월에 전투를 단행했다고 여겨진다. 지리적인 면을 염두에 둘 때, 고려군은 예산진에서 운주로 바로 진격했거나, 예산진에서 임존성을 경유하여 진격했거나, 아니면 예산진과 임존성 두 곳에서 동시에 전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고려군의 진군로는 1차와 2차 모두 비슷했을 것이다.

고려군은 왕이 참여하는 정벌이면서 충남지역의 중요 접경지역인 운주를 재탈환하기 위한 작전이었기에 최정예부대였다. 군세고 날랜 기병으로 입혀지는 경기(勁騎) 수천 명이 포함된 병력이었다.

100)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7년 추9월, “王自將征運州 甄萱聞之 簡甲士五千至曰 兩軍相鬪 勢不俱全 恐無知之卒 多被殺傷 宜結和親 各保封境 王會諸將議之 右將軍庾黔弼曰 今日之勢 不容不戰 願王 觀臣等破敵 勿憂也 及彼未陣 以勁騎數千 突擊之 斬獲三千餘級 擒術士宗訓 醫師訓謙 勇將尙達 崔弼 熊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101)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7년 글꼬리.

고려군은 우장군 유금필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적어도 좌군·우군·중군의 3군 체제를 갖추었을 것이다. 경기가 수천 명이므로 운주에 온 고려군 총 숫자는 최소 5천 명 이상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견훤이 직접 이끌고 있는 후백제군도 만만치 않았다. 비록 견훤이 먼저 화친을 제의했지만 왕건도 여러 장수들과 회의를 하면서 근심하는 모양새였다. 사료 마)에 나타나는 후백제의 갑사(甲士) 5천 명은 갑졸(甲卒) 5천 명과 같은 의미이다. 갑졸(갑사)은 갑옷을 입은 사졸(士卒), 곧 보병을 지칭한다.¹⁰²⁾ 이와 관련하여 5년 전에 의성부에서 중요한 전투가 있었다. 견훤이 929년(태조 12) 7월에 의성부를 공격하여 그 성주·장군 홍술을 전사시켰는데 이때 동원된 후백제군이 갑졸 5천 명이었다. 홍술의 전사 소식을 들은 왕건은 “나의 양팔을 잃었다”하며 통곡하였다.¹⁰³⁾ 이는 후백제군 갑졸 5천 명이 정예부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홍술은 923년 11월에 갑옷(鎧) 30벌을 왕건에게 헌상하였다.¹⁰⁴⁾ 따라서 홍술도 나름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갖추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런데도 후백제 갑졸부대에 목숨을 빼앗겼던 것이다. 그만큼 후백제군 갑졸의 전력이 뛰어났었다.

의성부전투 당시의 갑졸이나 운주전투 시 갑사나 단어의 뜻이 같고 병사의 숫자도 같으므로 동일한 전투부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운주전투의 후백제군은 심리전에 관여했을 술사와 군의관인 의사를 대동했으므로 잘 준비된 부대였다. 그 주요 지휘관 중에는 용장(勇將)이라 일컫는 상달과 최필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이 부대가 견훤의 최정예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갑졸(갑사)은 보병인데 고려군의 경기와 맞먹고 있었다. 상식적

102) 갑졸에 대해서는 『淮南子』의 내용을 인용 소개한 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 편보유』 1, 경인문화사, 2014, 253쪽 참고.

10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7월.

10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6년 11월.

으로 보병은 기병 그것도 정예기병인 경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왕건은 후백제의 ‘갑사부대(甲士部隊)’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 갑사부대는 경기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일찍이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기 전에 신라군으로 종군하며 자면서도 창을 베고(枕戈) 적을 대비했다고 하였다.¹⁰⁵⁾ 또한 신라는 긴 창을 다루는 부대인 비금서당(緋衿誓幢, 장창당長槍幢)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⁰⁶⁾ 아마도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후에 신라의 장창부대를 자기화했다고 여겨진다. 그는 갑옷으로 무장한 보병 중에서 장창(長槍)을 소지한 인원을 일정 정도 포함시켜 적 기병을 무력화하는 전술에 능하지 않았나싶다.

긴 창을 질러대는 후백제 갑사부대를 향해 고려군 경기의 말들이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경기 수천 명을 대동한 왕건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해된다. 후백제도 비록 갑옷으로 무장하고 장창을 소지했지만 고려군의 경기가 너무 많고 강해 보여서 머뭇거렸을 것이다. 양측이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군은 유금필의 주도아래 후백제의 갑사부대는가 진을 치기 전에 먼저 타격을 가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보병인 후백제 갑사부대는 진을 치기 전에 고려군의 타격을 받으면 그 진용이 흐트러졌을 것이고, 그런 후에 연이은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이런 전투가 가능하려면 지형조건이 평지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주성 일대의 평지에서 양측이 격돌했는데 선제공격을 감행한 고려군의 경기가 승리했다고 전투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제2차 운주전투에서 당연히 금준은 왕건에게 여러 도움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운주에서 가까운 예산진에서 왕건이 자애로운

10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106)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九誓幢. 신라의 장창당에 대해서는, 서영교,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慶州史學』17, 경주사학회, 1998 참고.

내용의 조서를 내린 것은 일대 지역민들의 협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운주의 지역세력이었던 궁준의 태도는 지역 민심확보를 위해 중요하였다. 또한 유금필이 앞장섰던 경기에 궁준과 그 휘하도 포함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궁준이 936년 9월의 일리천 전투에서 유금필과 함께 중군의 마군(馬軍)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¹⁰⁷⁾ 아마도 제2차 운주전투 때부터 유금필과 궁준은 말을 부리는 전투부대를 함께 했으리라 여겨진다. 비록 운주가 궁준의 고려 귀부 이후에 일시적으로 다시 후백제의 소유로 바뀌었지만 운주를 재탈환하려는 고려의 작전에 궁준은 여러모로 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 운주전투에서 도움을 주었을 사람으로 운주와 인접한 몽옹역(夢熊驛)¹⁰⁸⁾의 한씨(韓氏)를 들 수 있다. 서산과 태안 쪽에서 고려 통일전쟁기에 가장 주목받은 곳은 정해현(貞海縣, 충남 서산시 해미면)이었다. (정해현은) “세간에 전하기를 태조 때에 몽옹역의 역리였던 한씨 성을 가진 자가 큰 공로가 있어 대광(大匡)의 호를 내리고, 고구현(高丘縣)의 땅을 나누어 이 현을 설치하여 그의 관향으로 삼게 하였다”¹⁰⁹⁾고 한다. 이처럼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채 성씨와 업적만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씨가 세운 큰 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원래 지위가 높지 않고 특별히 지역세력이라고 내세울만한 인물도 아닌 사람이 한씨였다. 그에게 수여된 대광이라는 관계는 당시 지역민에게 주어진 것으로서는 최고의 대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왕건이

107)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9년 9월.

108) 현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한국지명총람』4(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85쪽). 현지답사를 해보니 토박이들은 동암리의 원래 이름을 역말(역마을)이라고 구술해 주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예전에 몽옹역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제보자 : 오관복(남 78세, 해주오씨, 동암리 토박이, 2015년 8월 18일 동암리 마을에서 구술) 외 4인.

109) 『고려사』권56, 지10, 지리1, 洪州 貞海縣, “世傳 太祖時 夢熊驛吏韓姓者 有大功 賜號太匡 割高丘縣地 置縣 爲其鄉貫”.

명주(강원도 강릉)의 실력자로 잘 알려진 왕순식에게 내린 관계가 바로 대광이었기 때문이다.¹¹⁰⁾ 서산지역에서 대광이라는 관계를 받을 정도로 큰 공을 세웠다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운주전투이다. 그가 세웠을 큰 공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군이 운주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적의 정보를 알아보았거나 진군로에 대한 안내, 군 보급품에 대한 협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¹¹⁾

이러한 한씨의 역할은 궁준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제2차 운주전투에서 왕건에게 도움을 주었을 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궁준과 한씨가 있었다. 특히 궁준의 공이 컸다. 전투의 현장이 원래 궁준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운주(홍주)는 호서(湖西, 충청도)의 거읍(巨邑)¹¹²⁾으로 발전하였다. 운주가 일대의 큰 고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궁준(홍규)은 가히 운주의 개조(開祖)라 하겠다.¹¹³⁾

사료 마)에 의하면, 고려군에 의해 후백제의 정예부대인 갑사부대 5천 명 중에서 3천여 명이 목 베이거나 사로잡히니, 그 소문을 듣고 웅진(熊津, 충남 공주) 이북의 30여 성이 스스로 항복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고려군의 압승이었던 것이다. 제2차 전투의 승리로 인한 파장은 1차에 비해 대단히 컸다. 918년 8월에 웅주·운주 등 10여 개의 주현이 모반을 일으켜 후백제로 넘어 갔었다. 16년이 지난 후에 정반대로 웅진 이북 30여 성이 고려로 귀부하였던 것이다. 918년보다 더 넓은 지역이 고려의 영역으로 바뀐 상황이 되었다.¹¹⁴⁾ 이러한 양국 영역의 접경선 변화에 대해서 약도를

110) 『고려사』권92, 열전5, 왕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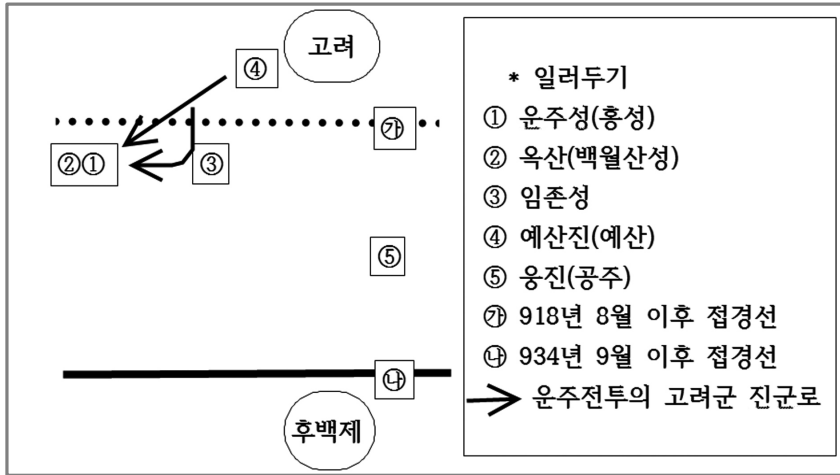
111)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6~27쪽.

112) 『신증동국여지승람』권19, 홍주목, 신증 궁실 객관, 曹偉 記.

113) 윤용혁, 「제5장 고려시대」, 『洪州大觀』상권, 홍주대관편찬위원회, 2002, 256쪽; 「고려시대 홍주의 성장과 홍주읍성」, 『전통문화논총』7, 한국전통문화학 교, 2009, 221쪽.

114)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8쪽.

그려보았다.



〈약도 1〉 운주성 일대의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선 변화

〈약도 1〉에 나타나 있듯이 후백제의 영역은 제2차 운주전투 이후에 공주 이남으로 후퇴하였다. 견훤은 이미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 대패하여 경상지역의 주도권을 왕건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견훤은 제2차 운주전투에서 패배하여 충남지역의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제2차 운주전투가 고려 통일전쟁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한 것이었다. 세력이 급격히 축소된 후백제는 제2차 운주전투가 끝나고 불과 6개월 만에 급변사태가 발발하였다. 935년 3월에 부자간의 내분으로 견훤이 큰 아들 신검에게 내쫓겨 금산사(전북 김제)에 감금되고 말았다.¹¹⁵⁾ 신검은 후백제의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견훤은 같은 해 6월에

이때의 웅진 이북 30여 성을 후일 공주와 홍주의 속군현이 된 지역과 서산 일대라는 견해가 있는데 참고된다(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2004, 149쪽).

11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춘3월.

금산사에서 탈출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왕건에게 귀부하였다.¹¹⁶⁾ 마침내 고려는 태조 19년(936) 9월에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경북 구미)에서 후백제의 신검군을 대패시켰다. 왕건은 마성(전북 완주군 용계산성)에서 신검의 항복을 받았으며, 후백제는 국가의 문을 닫고 말았다.¹¹⁷⁾ 이처럼 제2차 운주전투는 고려 통일전쟁사에 큰 획을 그었다.

5. 맺음글

이상과 같이 고려 태조 왕건이 수행한 통일전쟁의 주요 전투 중 하나인 운주전투(충남 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략 10세기 이전의 어느 때에 충남 홍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해풍향 또는 해풍현이 있었는데, 이 곳이 고려 통일전쟁기에 운주(運州)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났다. 해풍향(해풍현)은 그 명칭이 주(州)로 개칭되었고, 일대를 관할하며 이전에 비해 한껏 격상된 대접을 받았다. 여기에는 해당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궁예정권에게 귀부한 강력한 지역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운주는 당시 궁예정권과 견훤정권의 최일선 접경지였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력한 지역세력이 있었는데 그는 금준(兢俊)이었다.

둘째, 운주성의 성주(城主)이자 장군(將軍)인 금준은 신라 말의

11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하6월.

11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9쪽.

혼란기에 자립하고 있다가 궁예 휘하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918년 6월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하자, 2달 후인 8월에 후백제로 귀부하였다. 하지만 공준은 927년 3월의 제1차 운주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 패배하자, 다시 소속 국가를 바꾸어 왕건에게 귀부하고 말았다. 그런데 공준은 왕건의 제12비인 흥복원부인의 아버지 홍규(洪規)와 동일 인물이었다. 그리고 운주성(해풍현성)은 현 흥성읍내에 있는 평지성인 흥주읍성의 모태였다.

셋째, 왕건은 928년 4월에 운주 옥산(玉山)에 성(백월산성)을 쌓게 하였다. 그러나 932년 9월을 전후하여 운주는 후백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준은 계속 고려에 잔류하였다. 이후 왕건은 932년 11월 즈음에 일모산성(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공략에 성공하며 유리한 전선을 갖추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공준의 협조 속에서 934년 9월에 운주를 친정(親征)하였다. 왕건은 고려군 경기(勁騎)를 유금필에게 맡기어 견훤의 후백제 갑사부대(甲士部隊)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이 제2차 운주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자, 웅진(충남 공주) 이북의 30여 성이 고려로 투항하였다. 패배한 견훤은 충남지역의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처럼 제2차 운주전투는 고려 통일전쟁사에 큰 획을 그었다.

[원고투고일: 2015.7.1,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왕건, 견훤, 공준(홍규), 운주전투, 경기(勁騎), 갑사부대(甲士部隊), 운주성

<ABSTRACT>

The Battle of Unju led by King Wang Geon of Koryo dynasty and Geungjun's Role

Kim Myeong-jin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fore the tenth century, there had been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o called "Haepoong Hyang" which was located in Hongseong-eup, Chungnam as its center. It emerged as the remarkable name of Unju during the war for unification waged by Wang Geon. Unju could gain held such an important place as a border region due thanks to Geungjun, a man of influence there.

Second, Geungjun, as a general and castellan of Unju, had been independent during the turmoil toward the end of the Kingdom of Shilla before coming under the supervision of Gung Ye. But he subjugated himself to Hubaekjei in August 918 as Wang Geon had toppled Gung Ye and come to the throne in the June of 918. After defeated by Wang Geon's Goryeo forces at the first Battle of Unju in March 927, however, Geungjun subjugated himself to Wang Geon. To our surprise, he was the same person as Honggyu, who was the father of queen of Heungbokwon, Wang Geon's twelfth wife. And the Castle of Unju was the origin of Hongju Eup-Sung located in what is now Hongseong-eup.

Third, in April 928, Wang Geon ordered to build up a the castle called Baekwol Fortress in Oksan, Unju. But sometime later, Unju became under Hubaekje's control. Wang Geon embarked on a conquest into Unju in September 934. His cavalry, supported by Geungjun, won a great victory in the second Battle of Unju over Hubaekje's armor-clad forces under Gyeon Hwon. Wang Geon's victory here led to over 30

castles north of Woongjin surrendering to Goryeo. The defeat of Gyeon Hwon led to the downfall of Hubaekje.

Key Words : Wang Geon(王建), Gyeon Hwon, Geungjun(Honggyu), the Battle of Unju(運州戰鬥), cavalry(勁騎), armor-clad forces(甲士部隊), the Castle of Unju(運州城)